

[page 86]

At the end of the war in 1856, Mary turned out broke.

→ 1856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메리는 파산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She had spent all her personal wealth in the Crimea.

→ 그녀는 크림 반도에서 개인 자산을 모두 써버렸다.

She returned to England ill and poor.

→ 그녀는 병들고 빈곤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왔다.

Fortunately, there were veterans (who never forgot the amazing things that Mary had done on the battle field.)

→ 다행스럽게도 메리가 전쟁터에서 했던 놀라운 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던 참전군인들이 있었다.

Some army officers organized a benefit festival to raise funds in her honor.

→ 일부 군 장교들은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모금 축제를 조직하였다.

It was reported that to their surprise, thousands of contributors gathered and her name was shouted by a thousand voices.

→ 놀랍게도 수천 명의 기부자들이 모였고 그녀의 이름이 수천의 목소리로부터 연호되었다고 보도되었다.

She was also awarded three medals for her bravery and her work from England, Turkey, and France, which is vividly depicted in her portrait.

→ 그녀는 또한 그녀의 용기와 업적으로 인해 영국, 터키, 프랑스로부터 3개의 메달을 받았는데, 이는 그녀의 초상화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In 1857, with the help of her supporters, Mary published her autobiography, *Wonderful Adventures of Mrs. Seacole in Many Lands*.

→ 1857년에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메리는 자신의 자서전 *Wonderful Adventures of Mrs. Seacole in Many Lands*를 출간하였다.

The last 25 years of her life, however, were spent quietly outside of public attention.

→ 하지만 그녀의 생의 마지막 25년은 대중의 관심 밖에서 조용하게 보내졌다.

She died on May 14th, 1881.

→ 그녀는 1881년 5월 14일에 사망했다.